

AI 집중 투자... 민간 주도 ‘스케일업 팀스’ 확대

ECONOMY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중기부, 추정 반영 50개 신규과제 추가

글로벌 트랙 신설...19일 통합 설명회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AI) 분야의 급격한 기술·시장변화에 대응하고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대대적인 스케일업 팀스 기업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민간주도 R&D 프로그램 ‘스케일업 팀스 기업지원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102개 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기존 지원계획과 추경으로 추가된 50개 과제, 글로벌 트랙 24개를 포함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팀스 R&D 176개 과제에 대한 통합 지원계획이다.

먼저 AI분야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고자 추경을 통해 스케일업 팀스(일반형) 신

규과제가 102개에서 152개로 확대됐다.

중기부는 추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R&D를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화운영사 제도를 통해 AI 분야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 R&D 밀착지원도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R&D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최대 15억원의 R&D 자금을 제공 하는 글로벌 트랙이 신설됐다.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선행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하지만, 글로벌 진출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해외 VC 등으로부터 누적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거나 최근 3년간의 누적 해외 매출액이 50만달러 이상, 해외 사무소, 법인 등 현지 활동 기반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규 과제 수는 24개로, 이 중 50%는 정액간의 연계를 통한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팀스, 초격차 스타트업 등 중기부의 주요 지원사업을 수행한 혁신기업군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중기부는 글로벌트랙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R&D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킹 및 현지 R&D 거점 등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스케일업 팀스, DCP 은·오프라인 통합 사업 설명회를 통해 안내된다.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나 전문기관(02-2280-0422·0426·0427)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

지역 30명 선발 MZ세대와 소통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7일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2008년 시작된 이후 매년 지역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온 대표적인 대외활동으로, 지역 대학에서 3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ESG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해 브랜드 홍보, MZ세대와 소통,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젊은 세대의 감각과 특색 뛰는 아이디어를 더해 광주은행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홍보대사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단체복이 제공되며,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 팀 및 개인을 선정해 별도의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창의성과 협업 역량을 갖춘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광주은행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광주은행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개인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농어촌공사, 베트남 사업 결실

‘홍강델타 쌀 가치 향상’ 준공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베트남 타이빈성에서 ‘홍강델타 쌀 가치사슬 향상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2019년부터 6년간 추진한 국제농업협력 과제로 총 사업비 53억원이 투입됐다. 한국 농업협력 모델을 적용해 쌀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등 쌀 산업 가치사슬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해 베트남 농업환경부(MAE),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NIAPP), 타이빈성 인민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공식 인제인수 절차를 진행했다.

홍강 델타는 베트남 북부 홍강 하류와 타이빈강이 만나는 곳에 있는 비옥한 삼각주 지역으로, 쌀 생산에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곳 농민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벼 재배 기술이 낙후돼 쌀 수확량이 적었고, 수확 후 건조나 저장 없이 바로 판매하면서 품질도 저하됐다. 유통망이 부족해 농민 개인이 유통업자를 직접 상대해야 했으며, 열악한 품질과 부족한 가격협상력은 결국 낮은 판매가격으로 이어졌다.

취약한 쌀 산업 구조는 농가소득을 낮췄고, 낮은 농가소득은 재투자 여력 부족으로 이어져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한국형 농업협력 모델인 ‘쌀 가치사슬 고도화’와 ‘농민 조직화’에 주력했다. 영농교육센터와 시범농장을 조성해 재배와 품질관리, 시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시행했고, 농업인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20t 규모의 건조저장시설과 온실(그린하우스) 등 인프라를 구축해 생산 기반도 보완했다. 무엇보다 쌀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을 개인에서 협동조합 중심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홍강 델타 지역 농민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다. 사업 전과 비교해 수확량은 약 20% 증가했으며, 농가소득도 60% 이상 높아졌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GICON, 옛 적십자병원서 5·18 전시회

창업기업 모이즈 기획...체험형 콘텐츠 등 다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입주기업 ‘모이즈(MOIZ)’가 옛 광주적십자병원에서 체험형 전시 ‘멈춘 공간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장은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자 치료와 시민 현혈이 이뤄졌던 상징적 공간이다. 모이즈는 공간의 역사성을 살려 응급실, 중앙복도, 영안실, 중앙현관 등 병원 내부를 전시 장소로 활용하고, 그 안에 당시의 기억을 예술적으로 담아냈다. 아와미당에는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창의적인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모이즈’는 콘크리트를 소재로 도시의 기억을 예술



로 풀어내는 지역 창작기업으로, 지역성과 역사성을 융합한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작 ‘콘크리트 보이즈’는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아낸 바 있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전시는 지역 창업기업의 창의적 시도가 지역 역사와 만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은행은 지난 7일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2008년 시작된 이후 매년 지역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온 대표적인 대외활동으로, 지역 대학에서 30명을 선발했다.

중흥그룹, 순천 ‘선월하이파크단지’ 2차 용지 공급

업무시설·공동주택용지 등 5필지...14~15일 신청접수

중흥그룹이 전남 동부권의 핵심 주거벨트로 평가받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2차 용지 공급을 진행한 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일원에 위치하며, 95만6296㎡(약 29만평) 규모로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약 6000세대의 인구를 수용하는 주거단지 조성 중이다. 시행은 선월하이파크밸리㈜가 담당하며,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시공을 맡았다.

이번 2차분 용지 공급은 업무시설용지 3필지, 문화시설용지 1필지, 공동주택용지 1필지로 14일부터 15일까지 일괄 보충 납부 및 신청접수에 이어 16일 일괄 및 낙찰자 발표, 20일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향후 3차분 용지 공급은 상업시설용지 42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4필지, 단독주택용지 16필지로 다음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순천을 대표하는 신대지구가 바로 인근에 자리해 각종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약 3만명 거주 규모로 조성되는 신대배후단지외도 인접해 향후 주거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풍일반산업단지, 울촌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를 비롯해 광양과 여수를 대표하는 광양항만, 포스

코 광양 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 등과 인접해 많은 일자리를 바탕으로 풍부한 주택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주거를 위한 핵심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선월지구 생태회랑에 식재된 나무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녹지 면적이 확보돼 있으며, 신대천과 도심공원이 연결되는 친환경 수변공원이 있어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이어 중심부 3곳에 초·중·고 등 다양한 교육시설 등도 조성될 계획이다. 이밖에 문화시설 용지, 상업지구 내 소공원 등 다채로운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대형쇼핑몰 유치도 예고돼 있다. 순천 신대지구 일대에 해외 유명 창고형 유통시설 유치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비 촉진에 따른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대목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의 주거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네거티브 방식 규제 완화 대선공약에 반영”

광주경총 촉구...신산업 등 분야별 제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8일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규제 완화’ 분야를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 완화는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경영 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혁신하지는 취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신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광주경총은 “AI,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나 사전 허가 위주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안전 규제와 관련해 “환경보호와 산업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이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논란이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해소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노동 분야 규제에 대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조치로 개선, 노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 설립이나 증설, 새로운 설비도입 과정에서 마주치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KCA “소형 전자파 측정기 빌려드립니다”

광주지하철내 대역소 설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 전자파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소형 전자파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이동통신 기지국(3G, 4G, 5G)과 실내 와이파이가 공유기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3년간 6000여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전자파 안전성을 확인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전력과 협력, 전력설비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측정이 가능한 측정기를 새롭게 도입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 지하철 역사 내 측정기 대여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역소 운영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형 전자파 측정기 대여서비스는 KCA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emf.kca.kr)에서 ‘전자파 측정 신청-주거·상업시설’ 메뉴를 통해 신청하거나, 대역소 운영 지역은 인근 지하철 역사의 대역소에 직접 방문에 신청할 수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2.6% 늘어...총 물동량 감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분기 여수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49만1187TEU로 전년 동기(47만8524TEU)에 비해 2.6%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은 43만7589TEU로 전년 동기(40만2764TEU) 대비 8.6%(3만4826TEU)가 증가했으나 환적물동량은 5만3598TEU로 전년 동기(7만5761TEU)보다 29.3%(2만2163TEU) 감소했다.

경기침체에도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한 이유는 미국 수입 물량, 중국 수출물량 및 동남아 국가 물량증가와 미국의 관세부과 유예조치에 따라 밀어내기식 화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환적화물은 머스크(중남미 서비스)와 장금상선의 부정기선 물동량이 줄어들고 국내 수출입화물이 증가에 따른 선박량 부족으로 환적화물 처리가 뒤로 밀리면서 제대로 취급하지 못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는 달리 여수광양항의 총 물동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9.0%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총 물동량은 6910만t이었으나 올해 1분기는 6290만t으로 620만t 줄었다. 석유화학 물동량 13.7%(500만t), 제철 물동량 2.5%(60만t), 자동차 물동량 22.0%(6만대)가 각각 감소했다.

이경하 여수광양항만공사 마케팅부장은 “광양항의 주력제품인 석유화학 경기가 어렵고 제철산업 경기도 녹록지 않아 2분기 전망도 어둡다”며 “물동량 확보를 위해 타깃마케팅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